

군산시,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 총력

신재생 에너지·미래 자동차산업 중심지 도약 정부 지원 필수 시, 용역보고회 이어 25일 공청회 열고 특구 지정 행정력 집중

군산시가 경제위기 극복과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는 강소연구개발특구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16일 군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강임준 시장 주재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강소특구가 고용과 산업위기를 겪는 군산이 신재생 에너지와 미래 자동차산업 중심지로 도약할 필수사업이라며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연구개발을 통해 신기술을 창출하고 연구개발 성과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조성되는 곳이다.

특구 내 연구소, 기업, 첨단기술기업에는 세제 혜택이 주어지며 전문인력 양성, 기술사업화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시는 군산대 새만금캠퍼스, 군산국가산업단지, 새만금산업단지를 연결하는 특구로 조성해 에너지 신산업과 미래형 자동차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25일 군산대에서 공청회 열어 특구 종합계획, 전문가 토론, 의견수렴 등을 거친 후 상반기에 정부에 특구 지정 요청서를 낼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강소연구개발특구는 지역 경제위기 극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군산시는 최근 강임준 시장 주재로 강소연구개발특구 유치를 위한 종합계획 용역보고회를 열고 사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군산시 제공>

새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유망기업 유치와 연구성과를 활용한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된다"고 말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



담양군, 미세먼지 대응 '천년향기 숲' 조성 올해도 남면 풍암리 등 7곳서 아까시나무 등 심어

담양군이 미세먼지, 온난화 등에 대응하고 꽃향기가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천년향기 숲'을 조성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유류지 20곳 43ha에 아까시나무, 백합꽃, 유나무 등을 심었으며 올해는 남면 풍암리 등 7곳 14.5ha에 아까시나무 등을 심어 총 57.5ha의 숲을 조성한다.

미세먼지 저감과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위해 올해에만 67ha에 편백, 대나무, 상수리 등 14만 본의 나무를 심었다. <사진> /담양=서영준 기자 xyj@

담양군은 우리나라 벌꿀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밀원(蜜源)수인 아까시나무가 늘어남으로써 양봉 농가 소득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흥준 담양군 산림정원과장은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서는 나무를 심고 기르는 일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담양의 미래천년을 이끌어 갈 소중한 자원이 될 명품 향기 숲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군은 우리나라 벌꿀 생산량의

(주)꾸러미 노암산업단지 투자협약식

2019. 04. 15(월) 10:00 남원시청

남원시, (주)꾸러미, 노암산업단지

농업회사법인 (주)꾸러미 70억원 투자 남원 노암산단에 김부각 생산공장 짓는다

농업회사법인인 꾸러미가 남원시 노암산업단지에 70억원을 투자해 김부각 생산공장을 짓기로 하고 최근 남원시청에서 투자협약식을 했다. <사진> 꾸러미는 노암산업단지 7810㎡ 부지에 공장을 건립하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가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상 가동되면 15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항주 남원시장은 "꾸러미가 김부각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장애인주간 운영

고창군은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장애인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행으로 행복한 고창'을 주제로 20일 까지 진행되는 이번 장애인주간은 차이가 차별이 아닌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17일에는 제39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청소년수련관 소극장에서 장애인과 가족, 관련 기관 단체 회원, 군민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기념식을 개최한다.

19-20일에는 고창군 장애인복지관(관정정종만)과 고창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천옥희)가 주관하는 더불어 행복한 어울마당 행사도 진행된다.

/고창=박형진 기자 phj@

지역농산물 가공식품 육성 익산시, 아이디어 콘테스트

익산시는 가공식품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와 식품산업 유통활성화를 위해 추진된다. 이번 콘테스트는 오는 5월 3일 서동공원 축제장에서 진행된다.

분야는 즉석가공식품을 제외한 '일반가공식품'과 '발효식품' 2가지다. 참여는 지역 농산물 가공식품에 관심이 있는 모든 시민과 농업인, 농업법인 등이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농식품유통과(063-859-3795)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순창군민이 기획·연출 '요만치 문화제' 18일 개최

순창군민이 기획하고 연출한 '요만치 문화제'가 18일 오후 7시 순창 영화관 야외 무대에서 열린다. 순창군에 따르면 요만치 문화제는 순창에 사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기획하고 군민들이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크다. 특히 유수의 방송사에서 다수의 프로그램을 연출한 경험이 있는 차재훈 감독이 기획하고 조순창씨가 연출을 담당해 이번 문화제의 독창성과 구성도면에서 탁월한

숨쉬를 뽐낸다. 연출을 담당한 조씨는 뮤지컬 업계에서는 정평이 나있다. 고향으로 귀향한 그는 커피 사업체를 운영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번 문화제를 위해 특별히 힘을 보탤다. 총 5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이번 공연은 60분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순창중앙초 아가펠라팀이 첫 번째 주자로 무대에 오른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

박희진 성악가와 순창중앙초 아가펠라팀이 이뤄낸 앙상블이 무대를 찾은 순창군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할 예정이다. 또 불귀크루, 색소폰하모니, 순창우승오케스트라도 공연에 참여한다. 순창우승오케스트라는 지난 2월 미술관 내 작은 음악회를 통해 매스컴과 지역 주민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사했다. 마지막으로 선보일 미디어파사드 공연은 영화관과 미술관 외벽을 활용해 화려한 불빛으로 문화제의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순창=장영민 기자 jyg@

"장성 청렴교육 배우자" 공직자 발길 잇따라 올해 중앙부처·공공기관 종사자 등 65개 기관 8000명 예약

사회적으로 청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청렴 매카'로 불리는 장성에서 청렴교육을 체험하려는 중앙부처와 자치단체, 공공기관 종사자들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다. 16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난 8년간 청렴교육 프로그램 체험을 위해 1270개 기관·단체와 7만8000여명의 인원이 장성을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다. 인기에 힘입어 올해는 현재까지 14개 기관에서 1000여명이 교육에 참여한 가운데 교육예약 접수 완료 건만 65개 기관, 8000여명에 이른다. 이 프로그램은 두 청백리의 생애와 시대적 흐름에 맞춰 해석한 현대적 의미의 청렴을 주제로 한 특강과 청렴 유적지를 돌아보는 체험으로 짜여졌다. 청렴정신의 상징인 박수량 선생의 '백 비(白碑)'와 송흥 선생의 '관수정(觀水亭)'을 비롯해 호남 유일의 사액서원인 '필암서원' 등을 전국 최대의 편백나무 인공조림지인 측량산과 국내에서 가장 긴 꽃길인 '활룡강', 출렁다리로 재미를 더한 '장성호 수변길' 등을 묶어 다양한 체험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청렴다짐 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했다. 청백리 정신과 선비문화에 대한 강의를 들은 뒤, 교육생이 직접 청렴 다짐서를 작성해 청렴 정신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다. 청렴교육 강의 문의와 예약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청렴교육팀(061-390-8576-8577-8578)으로 하면 된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에나방** NAVER 공식 블로그에서 구독하세요

남구 덕남동, 임야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
- 임야 22600평중 300평, 지분매매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도로접
- 인접토지 맹지도 15-20만원에 매매 됨
- 대학교수, 세무사, 간호사도 매입함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투자적합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매매 - 7,500만원

문의. 010-6834-7400

